

# 傳統祭禮에 관한 考察\*

## The Study on Korean Traditional Ancestral Rites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金仁玉

교수 李吉杓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 : In Ok, Kim

Prof. : Kil Pyo, Lee

### ● 목 차 ●

I. 緒論

II. 研究方法

III. 文獻考察

IV. 祭禮의 現代的 論議

V. 結論

參考文獻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late confucian ideas in Chosun-Dynasty with ancestral rites in order to recover our traditional rules of propriety and morality which is disappeared in mordem society.

For this object, this study reviewed ceremonies of traditional society in examining original literature such as 『Kyung-moon-yokyal』 by Lee Yul Kok, 『Karae-geep-ram』, 『Oee-rae-mun-hae』 by Kim Jang Saeng, 『Sa-rae-pyun-ram』 by Lee Jae which is written in Chosun-Dynasty.

By this literatures, the main idea of ancestral rites represented in literature is that filial piet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a true heart rather emphasized more than formality

From this study, I figured out that our traditional ancestral rites and its performance offered the moderns good opportunities to learn how to respect others and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create better cultural life in modern home.

\*본 연구는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중 일부분을 요약한 것임.

## I. 緒論

祭禮란 祭祀를 지내는 제반 儀式 및 예절로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天地神明, 日·月·星·辰에 지내던 것에서 부터 家門의 先祖에게 올리는 것으로 일반화되기까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傳統祭禮를 論함에 있어 祭禮가 갖는 본래의 의미와 그 歷史의 由來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古來로부터 現代의 生活에 이르기까지 매우 방대하고 심오하다.

現代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흔히 祭禮에 관한 研究라 한다면 儒敎形式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儒敎는 朝鮮時代에 統治理念으로 삼았던 思想的 基盤으로서, 現代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傳統的 價値觀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儒敎의 傳統社會에서 禮는 實踐倫理로 특히 四禮中 祭禮는 儒敎倫理의 基本德目인 孝를 바탕으로, 돌아가신 祖上과 父母에 대한 崇拜에서 출발한다.

제례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제례의 영역이 학문적 접근방식이나 학자들의 사상적 견해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즉, 傳統祭禮에 대한 價値意識(임옥재1981; 이길표1982; 한경순1986; 박순천1986; 박수정1989; 홍현주1986)이나 祖上崇拜思想으로서 祭儀 연구(최길성1983; 유동식1986; 송석구1986; 장수근1986; 안혜숙1983), 祭禮慣行 및 衣食住行禮(김문숙1975; 이선희1992; 이수은1981; 임양순1984; 김인옥1990; 김주야1993)등 각 분야별로 관련된 연구가 있다.

이와같이 祭禮가 民俗學, 人類學, 家政學등 여러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각도로 연구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정신세계에서나 실생활에 있어서 祭禮가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내용으로 논의되어 그 의의도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대사회의 산업화정책은 도시로의 인구가 동과 함께 씨족공동체를 이루었던 본래 우리의 사회구조에 변화를 주어 도시를 중심으로 핵가족화를 가속시켰다. 이와같은 현상은 사회 뿐 아니라 가정 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어 본래의 가족공동체의식은

외래 물질문명의 부비관적 수용과 더불어 개인적 이기주의로 흘러 고유문화나 사상적 맥을 찾지 못하고 가치관 혼란의 시기를 맞게 되었으며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한 가치관이나 주체의식이 없이 흔들리고 있는 현대인의 정신문화적 구심점을 어디에서 찾으며, 각각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개개의 가족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 가정은 나름대로 어떠한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개인중심적 핵가족사회에서 현대인은 제례를 통해 한 조상의 후손들이 모여 돌아가신 先祖를 생각하며 가족간, 친척간에 화목을 도모하며 다시금 가족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기회의場으로서 제례는 다른 어떤 의례의 모임보다도 현대인에게 필요하다고 본다.

歷史的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민간신앙에 포함되어있던 제례가 유교적 제례형식을 따르게 된 것은 고려말 주자 가례가 들어 오면서부터이다. 朱子家禮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禮書들이 속속 撰述되었고 문벌있는 양반가문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지키며 규범적 생활을 실천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한때 禮學(16c말-17c)이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조선시대 유학사상 중 예학이 발전하였던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이 시기에 나온 禮書들을 통해 전통제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조선시대를 지배했던 유교사상의 사상적 측면을 제례와 연결시켜 오늘날 혼란된 가치관과 의식속에서 날로 퇴색되어가는 우리의 傳統 禮意識과 道德性을 되찾아 보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 II. 研究方法

본 연구는 '家政學의 觀點에서 傳統祭禮에 대해 究明하고 祭禮行禮(設位, 祭服, 祭需, 節次, 場所 등)의 원형을 모색하기 위해 本論의 내용에 의해 충실하게 이를 分析하였다.

한국 性理學의 태두이며 金長生의 스승인 栗谷李珥와 후학 陶庵李穡 등 栗谷系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대표적인 禮書, 즉 李珥의 『擊蒙要

〈표 1〉 禮書의 內容

擊蒙要訣(1577)	家禮輯覽(1599)	疑禮問解(1643)	四禮便覽(1700년경)
1. 立志章	1. 通禮	1. 卷一	1. 冠禮
2. 革舊習章	2. 冠禮	家禮圖, 通禮	2. 昏禮
3. 持身章	3. 昏禮	宗法, 冠禮	3. 喪禮一
4. 讀書章	4. 喪禮一	婚禮	4. 喪禮二
5. 事親章	5. 喪禮二	2. 卷二	5. 喪禮三
6. 喪制章	6. 喪禮三	喪禮全般	6. 喪禮四
7. 祭祀章	7. 祭禮	3. 卷三	7. 喪禮五
8. 居家章		喪禮全般	8. 祭禮
9. 接人章		4. 卷四	
10. 處世章		小喪·大喪· 忌日·墓祭	
(부록 祭儀抄)			
1. 出入儀			
2. 參禮儀			
3. 薦獻儀			
4. 告事儀			
5. 時祭儀			
6. 忌祭儀			
7. 墓祭儀			
8. 喪服中行 祭儀			

訣』, 金長生の 『家禮輯覽』 『疑禮問解』, 李緯의 『四禮便覽』을 고찰하였다.

이는 沙溪를 기준으로 하여 그의 스승 栗谷과 후학 陶庵의 저서를 통해 韓國性理學 栗谷系의 儒家를 중심으로 하여 祭禮를 보고자 함이다.

本研究의 基本的 資料로 선정한 栗谷, 沙溪, 陶庵의 대표적인 禮書, 『擊蒙要訣』 『家禮輯覽』 『疑禮問解』 『四禮便覽』의 內容은 〈표 1〉과 같다.

이상의 4가지 古文獻중 본 논문은 『擊蒙要訣』의 第六 喪制章과 第七 祭祀章 그리고 부록 祭儀抄 부분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家禮輯覽』의 祭禮章, 『疑禮問解』 祭禮中 忌日, 『四禮便覽』 卷之八 祭禮章을 중심으로 하여 文獻考察하였다.

### III. 文獻考察

#### 1. 栗谷의 『擊蒙要訣』에 나타난 祭禮

『擊蒙要訣』은 전체 本章이 10장으로 되어있으며 이중 喪·祭禮章은 祭禮에 대한 개괄적 서술을 하고 있고 忌祭에 관한 내용은 부록 祭儀抄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栗谷은 『擊蒙要訣』 제 7장 祭禮章에

祭祀는 마땅히 『家禮』에 따르고 반드시 사당을 세우고, 먼저 신주를 받들고 그리고 제전(祭田: 제사지널 뭉으로 주는 위토)을 설치하고 제기를 갖추어 종손이 이를 주관한다<sup>1)</sup>.

1) 『擊蒙要訣』, 祭禮章 第七, 祭祀當依家禮 必立祠堂 以奉先主 置祭田 具祭器 宗子主之

〈표 2〉 『擊蒙要訣』 祭儀抄에 나타난 忌祭

구 분	내 용	
設 位	제사 지별분 한분(考位나 妣位중 한분만)	
祭需의 종류	果, 脯, 熟菜, 醢, 沈菜, 清醬, 醋菜, 魚, 肉(어육은 生物을 쓴다.) 餅, 麵, 羹, 飯, 湯, 炙	
祭 服	부모제사	- 관직 있는 경우 : 縞色帽(흰모자) 혹은 黻布帽(거스름한 모자), 玉色團領(옥색단령), 白布角帶(흰 각대) - 관직 없는 경우 : 縞色笠(흰패랭이) 나 黻色笠(거스름한 패랭이), 玉色團領(옥색단령), 白帶(흰띠), 白靴(흰신) - 부인 : 縞色屐(흰 배자), 白衣 白裳(흰 치마저고리)
	祖이상제사	- 관직 있는 경우 : 烏紗帽(검은사모), 玉色團領(옥색단령), 白布角帶(흰 각대) - 관직이 없는 경우: 黑笠(검은 패랭이), 玉色團領(옥색단령), 白帶(흰띠) - 부인 : 玄屐(검은 배자), 白衣 玉色裳(흰옷에 옥색치마)
	방계친제사	- 관직 있는 경우 : 烏紗帽(검은사모), 玉色團領(옥색단령), 烏布角帶(검은각대) - 관직 없는 경우: 黑笠(검은패랭이), 玉色團領(옥색단령), 黑帶(검은띠) - 부인 : 다만 화려한 옷을 입지 않는다.
節 次	① 參神 ② 降神 ③ 進饌 ④ 初獻 ⑤ 讀祝 ⑥ 亞獻 ⑦ 終獻 ⑧ 侑食 ⑨ 闔門 ⑩ 啓門 ⑪ 進茶 ⑫ 辭神 ⑬ 納主 ⑭ 徹	
場 所	정침(正寢)	
금 기 사 항	·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는다. · 남자는 저녁에 사랑에서 지낸다.	

하였다. 家廟로서 祀堂은 모든 祭禮의 핵심으로 출입할 때나, 집안의 大小事가 있을 때 선조에게 고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로 생각하고, 이를 귀히 모시고 祭田이나 祭器를 마련하는 일을 매우 중히 여겼다. 한편 모든 제사 주관자는 宗子로 규정하고

무릇 제주는 사랑하고 공경하는 정성을 다할 뿐이니, 집이 가난하면 집안 형편에 맞게 하고 해야려 제사지내고 그리고 병이 나면 근력을 짐작해서 제사 지내고, 재력이 있어 제사를 지낼 수 있으면 마땅히 그 의식에 따라야 한다<sup>2)</sup>.

묘제, 기제를 세속에서 서로 돌아가며 행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묘제는 각 집에서 돌아가며 행한다 하더라도, 산소 앞에서 지내는 것이 오히려 가하나, 기제에 神主를 모시고 지내지 않고, 지방을 써서 제사 지냄은 심히 좋지 않다. 비록 서로 번갈아 지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거든, 여러 가지 제물을 차려놓고, 가묘에서 지내는 것이 옳을 것이다<sup>3)</sup>.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당시만 해도 풍습에 제사

를 자손들이 서로 번갈아 가며 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栗谷은 이는 올바른 제례행례가 아님을 경계하여 가르치고 있다.

다음 『擊蒙要訣』 祭儀抄의 忌祭儀에 나타난 栗谷의 祭禮行禮를 보면 〈표 2〉와 같다.

栗谷은 기제에 散齊가 이틀이고 致齊가 1일<sup>4)</sup>로, 設位는 제사를 모실 분 한분 자리만 마련하나, 후

2) 『擊蒙要訣』, 祭禮章 第七, 凡祭主於盡愛敬之誠而已 貧則稱家之有無 疾則量筋力而行之 財力可及者自當如儀

3) 『擊蒙要訣』, 祭禮章 第七, 墓祭忌祭世俗輪行非禮也 墓祭則雖輪行 皆祭于墓上猶之可也 忌祭不祭于神主 而乃祭于紙榜 此甚未安 雖不免輪行 須具祭饌 行于家廟庶乎可矣

4) 『擊蒙要訣』第七 祭禮章에 의하면,

· 散齊者는 다른 사람 喪에 가지 아니하고, 병문안도 가지 않으며 마을 같이 냄새나는 것을 먹지 않고, 술 먹지 않고, 모든 흉하고 더러운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 致齊者는 함부로 음악을 듣지 않고 출입을 하지 않으며 오로지 제사지내는 일만 생각한다.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한 번에 지낼 때에는 두분 상을 차린다 하였다.

또한 祭需에 있어서 음식을 갖추는 일은 時祭때와 같이 하되 과일과 탕은 세 가지를 넘지 않으며 형편에 따라 더 간략히 할 수도 있다 하여 時祭와 차이를 두었다.

祭服에 있어서 세백이면 주인이하 옷을 갈아입고 祭祀 모실 준비를 하는데 부모나 조부모, 방계친등 각기 촌수에 따른 등급을 두어 제복을 달리 입었다. 여기서 栗谷은 緇는 白이고, 黜은 잡색을 말하며 은 검푸른 빛으로 玉色임<sup>5)</sup>을 명시하고 있다.

祭祀지내는 節次에 있어서는 時祭때와 같이 祝이 있고 三獻을 하는데 初獻禮는 祭主가 하고 亞獻禮는 주부(큰머느리)가 행한다. 이때 머느리, 딸들이 돕는다. 終獻禮는 주인의 형제중 제일 어른이나 혹은 장자, 혹은 친근한 손님중에서 행한다. 모든 節次가 끝난 후 時祭 때에는 祭物은 나누어서 가까운 사람에게 보내거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앉아 술과 찬을 먹고 끝나는데, 기제 때에는 제물을 나누어 먹거나 잔치는 하지 않아 受胙(제사지낸 고기를 복으로 내림 받는다)나 餼(대궁을 나누어 음복한다)의 절차는 없다.

축문에는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세월이 흘러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함에 시절에 느껴워 깊이 사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옵니다.)라 하며 축관이 읽는데 考(돌아가신 父를 칭함)와 妣(돌아가신 母를 칭함)의 제사나 방계친 제사는 때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또한 부모 제사 때에는 축문을 읽은 다음 주인과 형제들은 슬픔을 다해 鬻을 한다. 한편

제사 전날 주인은 모든 남자 제관과 집사를 거느리고 정침에 불을 뿌리고 깨끗이 청소하고, 의자와 탁자를 씻고 흠쳐 깨끗하게 마련토록 힘쓴다<sup>6)</sup>

라 하여 장소를 먼저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하며 제사지내기 前부터 미리 준비하였다.

이상으로 擊蒙要訣을 통해 栗谷家禮중 忌祭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時祭의 내용에 準해 이루어졌으나 약간의 차등 혹은 차이

를 두어 시행하였으며 栗谷이 序文에서도 밝혔듯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길을 밝혀야 행동도 올바르게 된다 하며 바르게 실천하여 행하는 것이 禮의 신의임을 역설하고 있다.

## 2. 沙溪의 『家禮輯覽』 『疑禮問解』에 나타난 祭禮

### 1) 家禮輯覽

『家禮輯覽』第五, 卷之十 祭禮章에서 沙溪는 祭禮 전반에 대해서 四時祭, 初祖, 先祖, 忌日, 墓祭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례에 대해 『禮記』 祭統을 인용하여

(祭統)에 祭祀란 奉養함이 미치지못함을 닦우치며, 못다한 孝道를 繼續함이다. 하고, (註)에 미치지 못한 봉양과 미진한 孝를 繼續함이라 하였다<sup>7)</sup>.

라 하여 祭祀란 바로 子孫된 사람이 미처 못다한 奉養에 대해 닦우치며, 미처 못다한 孝道를 계속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程子)는 말하기를 冠婚喪祭는 禮중에서 귀중한 것이건만 요즈음 사람이 도무지 모른다. 승냥이나 수달도 제 어버이에게 보답할 줄 아는데 요즈음 士大夫집에서는 대부분 이를 소홀히 여겨 奉養은 잘 하지만 先祖에 대해서는 薄하니 아주 불가하다<sup>8)</sup>.

라 하여 산 부모는 섬길 줄 알아도 돌아간 선조에 대해서 야박함은 승냥이나 수달만큼도 孝心이 없음을 개탄하고 있다.

한편 祭祀에 임하기에 앞서 마음과 몸을 삼가는 齋戒에 대해

(祭統)에 齊란 가지런함을 말한다. 가지런치 못함을 가지런케 함이다. 그래서 君子는 큰 일이 있지

5) 『擊蒙要訣』, 祭儀抄 忌祭儀. 緇白黑雜色也 黜淺青黑色也 卽今之玉色也

6) 『擊蒙要訣』, 祭儀抄. 前一日主人帥衆丈夫反執事 掃正寢 洗拭 卓務令獨潔設

7) 『家禮輯覽』, 祭禮章 第五, (祭統)祭者所以追養繼孝也 (註)追其不及之養 而繼其未盡之孝也

8) 『家禮輯覽』, 祭禮章 第五, (程子)曰冠婚喪祭禮之大者 今人導不理會 豺獮皆其報本 今士大夫家 多忽此 厚於奉養 而薄於先祖甚不可也

않거나, 공경할 일이 있지 않으면 齋戒하지 않는다. 齋戒하지 않으면 사물에 防止할 것이 없으며, 취미나 욕망도 그칠 것이 없다. 앞으로 齋戒하려면 邪된 事物은 물리치고 趣味와 慾望도 그쳐야 하고 귀로는 音樂도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記에 이르기를 齋戒란 즐기지 않음이니 감히 그 뜻을 散漫케 하지 않음이라<sup>9)</sup>.

하여 祭統에서는 散齋七日에 致齋三日을 말하면서 이래야만 神明과 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齋라함은 마음을 삼가고 악한 것을 물리치는 것이니, 散齋란 제사전 7일간 목욕재계하며 준비하는 것이고 致齋란 제사 사흘전부터 재계하는 것을 말한다.

忌일에 지내는 祭祀에 대해서 沙溪는

張子 말씀에 옛사람은 忌일에 재물을 받치는 예는 없고 슬픔을 다하여 평상시와 다름을 보였을 뿐 이니라<sup>10)</sup>.

하였고, 先生은

후손이 없으신 叔祖의 기제 때에라도 제사를 봉행하기 전에는 손님을 만나지 않았다<sup>11)</sup>.

하여 내면적으로 마음을 가다듬고 실제 행동에 있어서도 삼감을 보였다. 또한

여행 도중에라도 기제가 있으면 탁자를 마련하고 향을 피워도 됩니까? 하니 “이런 자세한 것은 옛사람도 일찌기 말하지 않았으나, 이렇게해도 義理에 그다지 큰 지장은 없을 듯하니, 行해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풍속에 忌祭는 아들딸 따질 것없이 번갈아 지내는데 자손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는 일은 행할 수 없고 다만 중가의 제사를 도울 수 있다. 國典에 말하기를 “제사 비용이며 제사를 종족이 번갈아 마련한다” 하고, 또한 제사를 주관하고 자손이 면에서 따로 살면 여러 자손이 그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하였는데 그 비용을 宗家에 보내어 돕는다는 것일 뿐이지 각 집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한다는 것은 아니다<sup>12)</sup>.

하여, 부모 기제에 있어 중가의 제주로서 해야 할 의무 규범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沙溪는 『家禮輯覽』에서

기일에 다만 제사하는 바의 신위에 대해서만 제사를 지내고 배우자를 함께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

는 것은 배우자를 함께 제사를 지내는 바에 대해 소홀한 것이 아니라 슬픔이 현재 지내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sup>13)</sup>.

라고 하면서 이어서

대개 신위를 하나만 설치하는 것은 예의 올바른 시행이요 考와 駟를 함께 배향함은 예의 人情에 근본한 조치이다<sup>14)</sup>.

신위 하나만 마련하여 제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람된 자의 인정으로 兩位를 함께 設할 수도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제사를 지낸 후에는 제사음식은 빈객을 대접하였는데 이것은 음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까닭이다<sup>15)</sup>.

하여 그날 온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祭需에 대하여 劉氏 璿이 말하기를

“요즈음사람이 先祖를 祭祀지남에 반드시 희생 짐승을 다 잡지는 않는다.” 하면서 司馬溫公의 祭儀를 인용하여 “膾 生肉의 제품이 있다” 하였다. 丘氏 『儀節』에 희생제물에는 흑 羊 흑 돼지 닭 거위 오리도 있다 하였다. 요즈음 비록 소나 돼지를 온으로 잡아 고기와 간으로 구이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고기는 날로 저며 접시에 담고 또한 생선이 크

9) 『家禮輯覽』, 祭禮章 第五 四時祭, (祭統)齊之爲言也 齊不齊 以致齊者也 是故 君子非有 大事非有恭敬也 則不齊 不齊則 於物無防也 嗜慾無止也 及其將齊也 防其邪物 訖其嗜慾 耳不聽樂 故記曰齊者不樂 言不敢散其志也

10) 『家禮輯覽』, 祭禮章 第五 忌日 特致哀 示變而已

11) 『家禮輯覽』, 祭禮章 第五 先生爲無後叔祖忌祭未祭之前 不見客

12) 『家禮輯覽』, 祭禮章 第五 忌日, 問人在旅中 遇有私忌 於所舍設草炷香可否 曰這般微細處古人也不會說 若是無大於義理 行之亦無害 國俗忌祭不倫男女 輪流設行 國典云 祭享之費 與典祭 宗族輪番借辦 又言主祭子孫別居 遠處 衆子孫就其家 行祭 謂送助其費于宗家耳 非使之設行於各家也

13) 『家禮輯覽』, 祭禮章 第五 忌日, 忌日止祭所祭之位 而不配祭者非薄於所配祭 以哀在於所爲祭者故也

14) 『家禮輯覽』, 祭禮章 第五 忌日, 忌日 蓋止設一位禮之情也 配祭考妣禮之本於人情者也

15) 『家禮輯覽』, 祭禮章 第五 忌日, 其祭祀食物則以待賓客 此所以不設也

<표 3> 『家禮輯覽』에 나타난 忌祭

구 분	내 용
設 位	제사지내는분 신위에 대해서만 제사.
祭需의 종류	果, 沈菜, 醢, 淸醬, 熟菜, 脯, 餅, 魚, 炙, 肉, 麵, 羹, 醋楪, 飯(時祭饌 참조)
祭 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曾祖父와 祖父 때 모두 布冠, 素帶, 麻衣.</li> <li>· 曾祖妣와 祖妣 때 모두 素冠, 布帶, 麻衣</li> <li>· 父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布冠, 布帶, 麻衣, 麻履</li> </ul> </li> <li>· 母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素冠, 布帶, 麻衣, 麻履</li> </ul> </li> <li>· 伯叔父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素冠帶, 麻衣</li> </ul> </li> <li>· 伯叔母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麻衣, 素帶,</li> </ul> </li> <li>· 兄에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麻衣, 素帶,</li> </ul> </li> <li>· 弟姪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葛衣(침으로 짠 배옷)</li> </ul> </li> <li>· 庶母, 嫂(형수)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상시와 같이함</li> </ul> </li> <li>· 부인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特髻去飾(침지하고 민족두리) (長子の 祭服 인용)</li> </ul> </li> </ul>
節 次	① 參神 ② 降神 ③ 進饌 ④ 初獻 ⑤ 讀祝 ⑥ 亞獻 ⑦ 終獻 ⑧ 侑食 ⑨ 闔門 ⑩ 啓門 ⑪ 辭神 ⑫ 納主 ⑬ 徹(喪禮備要참조)
場 所	正寢(喪禮備要 참조)
금기 사항	· 기일에 자손들은 술과 고기를 먹어서도 안되고 먼 친척이라도 蔬食을 해야 한다.

면 두서너토막으로 잘라 한 토막만 접시에 담아도 된다. 혹은 닭이나 오리로 날고기를 대신하고, 새우나 게로 생선을 대신해도 되며, 닭이나 오리도 꼭 은 마리로 쓸 필요는 없으니 마땅히 쪼개어, 나누어 담아도 된다. 생선중에 잔 것도 쓸 수 있으니 반드시 한자짜리만 된다는 것도 아니다<sup>16)</sup>.

라 하였으니 이는 제물의 크기나 가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祭祀지내는 이의 정성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祭需의 進饌에 대하여서는

주인은 고기를 받들고 주부는 메를 받들고 간다. (曲禮) 대개 제물을 잡수어 놓는 차례는 왼쪽에 (뼈 붙은 살), 오른 쪽에는 截(저민 고기), 飯(메)은 산 사람 왼쪽에, 羹(국)은 산 사람 오른 쪽에, 膾와 炙(구이)은 밖에 놓고 醢(젓갈)와 醬(수정과)은 오른 쪽에 놓는다. 脯(두들겨서 생강 계피를 넣은 것)를 놓을 때에는 가운데가 굵은 것은 왼쪽에, 끝은 오른 쪽에 놓는다<sup>17)</sup>.

고 하였다.

忌일에 變服함에 長子の 『理窟』을 인용하여 曾祖에서부터 庶母·형수의 祭服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男子의 服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부인의 경우에는 孿人(수인)氏 부인이 머리를 묶어 髻(상투 : 머리꾸미개)를 하였으니, 髻는 즉 繼(묶음)이다. 沙溪는, 여자는 머리를 감아올려 외부에 방해 받지

16) 『家禮輯覽』, 祭禮章 第五 四時祭, 今人祭其先祖 未必皆殺牲云 而引司馬溫公祭儀有膾 生肉之品 丘氏儀節牲 或羊 或豕鷄鴨云 今亦雖不能專殺牛猪等肉及肝以爲炙 而肉則生切 盛楪且魚若體大 則截作二三段 盛一段於楪可也 或以鷄鴨可代生肉 蝦蟹可代生魚 而鷄鴨不必全體 當支割分盛 魚之細少者 亦可人用 不必滿尺 而後家也

17) 『家禮輯覽』, 祭禮章, 第五, 四時祭, 主人奉肉 主婦奉飯 (曲禮)凡進食之禮 左餞右截 食居人之左 羹居人之右 膾炙處外醢醬處內蔥深 處末 酒醬處右 以脯脩置者 左胞 右末

않게 할 것이다<sup>18)</sup> 하며 祭禮時 기본적인 머리모양과 함께, 머리장식에 대해 설명하고 장식은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祭禮節次에 있어서는 『家禮輯覽』忌日 부분에는 언급되지 않고 四時祭에는 初獻, 祝, 亞獻, 終獻 등 三獻禮와 侑食, 闔門, 受酢, 餞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때 亞獻은 主婦가 하고 終獻은 賓長이 한다<sup>19)</sup> 하였다.

한편 申義慶(1557-1647)이 쓰고 沙溪가 이를 보완하여 펴낸 『喪禮備要』<sup>20)</sup>의 忌日에 의하면<표 3>과 같이 參神에서부터 徹까지 13단계의 節次에 의해 행해진다. 이때 四時祭에서의 受酢나 餞의 節次는 없다.

祭禮場所에 있어서는 『喪禮備要』에 사당에 있는 神主를 正寢이나 廳事에 모셔온다 하였으니 忌日에 主祭祀空間은 正寢과 마루였음을 알 수 있다.

## 2) 疑禮問解

沙溪 金長生の 禮論問答集인 『疑禮問解』의 卷之四 祭禮章 忌祭에 관한 내용은 주로 그의 제자 송준길과의 문답내용으로 이루어졌다.

忌祭의 뜻이 무엇이나고 묻는 송준길의 불응에 沙溪는,

“忌라는 것은 근심스러워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이름이니 祭名이 아니다<sup>21)</sup>.”

“忌는 禁字(금지한다)의 뜻이니 슬픔을 머금고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諱는 避字의 뜻이니 그 의미가 서로 가깝다<sup>22)</sup>.”

하여 忌는 즉 금기하는 것이고 忌와 諱는 서로 의미가 비슷한 글자임을 설명하고 있다.

語類에 의하면

先生께서는 집에서 먼 조상의 諱日을 만났거든 아침 일찍 일어나 中堂에 선주를 내어모시고 三獻의 禮를 거행하였다. 이날 ‘家는 蔬食을 하였고, 그 제사음식은 賓客을 접대하는데 사용하였다<sup>23)</sup>.”

하니 해박한 이론과 함께 바른 실천을 몸소 보여주고 있다.

祭服에 있어서는 橫渠의 理窟에 의한 服色은 앞

서 『家禮輯覽』에서의 내용과 동일하고 朱子는 그보다 간소하다. 그밖에 沙溪는 栗谷의 『擊蒙要訣』에 수록된 祭服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마땅히 先儒諸先生의 가르침을 참작하여 行할 것을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語類에 의하면

“나는 스스로 帛服으로 緝衫緝巾(명주로 된 적삼과 두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忌日에 착용하였다<sup>24)</sup>.”

한다.

## 3) 陶庵의 『四禮便覽』에 나타난 祭禮

陶庵은 『家禮』를 기본으로 하여 沙溪의 『喪禮備要』에 冠禮와 婚禮를 첨가하여 『四禮便覽』을 내놓았다.

『四禮便覽』 卷之八 祭禮章에는 祠堂, 四時祭, 祭忌祭, 墓祭로 분류하여 제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祭禮章 처음 부분에서 陶庵은

군자가 집을 지으려 하면, 먼저 正寢의 동쪽에 사당을 세운다. 사당이 있는 집은 종손이 대대로 지키지, 나누어줄 수가 없다<sup>25)</sup>.

하여 祠堂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宗家の 宗孫이 이를 지켜야 마땅함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四時祭를 行하기 사흘전에 재계를 하고 하루전날

18) 『家禮輯覽』, 祭禮章, 第五, 婦人氏 婦人 人束髮爲髻 髻繼也 言女子 必有繼于人也 但以髻相繼而 無物繫縛

19) 『家禮輯覽』, 祭禮章, 第五, 次(亞獻) 主婦獻, 次(終獻) 賓長獻

20) 1581년 金長生이 父親의 喪을 치르는 과정에서 친구 申義慶의 초고를 보완하여 1583년 36세때 작업을 마쳤다. 이 책은 冠婚喪祭 중 喪祭禮에 대한 부분만 상세히 설명하고 하고 있다.

21) 『疑禮問解』, 卷之四 祭禮 忌日, 忌者舍恤而不及他事之謂

22) 『疑禮問解』, 卷之四 祭禮 忌日, 忌是禁字之義謂舍恤而不及他事也 諱是避字之義其義相近

23) 『疑禮問解』, 卷之四 祭禮 忌日, 先生家凡值諱日早起出主於中堂 行三獻之禮 一家固自蔬食 其祭祀食物則以待賓客

24) 『疑禮問解』, 卷之四 祭禮 忌日 其自有帛服緝衫緝巾忌日則服之

25) 『四禮便覽』, 卷之八, 祭禮章 四時祭, 君子將營宮室 先立祠堂於正寢之東 祠堂所在之宅 宗子世守之 不得分析



〈표 4〉 『四禮便覽』에 나타난 忌祭

구 분	내 용	
設 位	한 분의 신위만 設	
祭需의 종류	果, 食醢, 醢, 沈菜, 醬, 蔬, 脯, 餅, 魚, 炙, 肉, 麵, 羹, 醋, 樸, 飯	
祭 服	주인 과 형제	· 부모제사 - 黻紗帽(검푸른 사모), 黻布衫(검푸른 베적삼), 布角帶(베각대) · 祖父이상 제사 - 黻紗衫(검푸른 적삼) · 방친제사 - 烏紗衫(검은 적삼)
	주부	特髻去飾, 白大衣(흰큰옷), 淡黃帔(엷은노란 배자)
	나머지 사람	화려한 복식을 피한다
節 次	① 參神 ② 降神 ③ 進饌 ④ 初獻 ⑤ 讀祝 ⑥ 亞獻 ⑦ 終獻 ⑧ 侑食 ⑨ 闔門 ⑩ 啓門 ⑪ 辭神 ⑫ 納主 ⑬ 徹	
場 所	正寢	
금기 사항	· 술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는다. · 저녁에 남자는 바깥채에서 잔다.	

주인은 남자식구를 인솔하여 심의를 입고, 집사자들은 正寢을 청소하고 의자와 탁자를 닦아 청결하게 한다<sup>26)</sup>.

주부는 여자 식구를 인솔하여 배자를 입고, 제기를 닦고 술을 씻고 제수를 준비하되 정결하도록 한다. 제사를 지내기 전에 먼저 먹거나 개나 고양이 나 쥐등이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한다<sup>27)</sup>.

하여 주인과 주부이하 祭禮에 임하기 前 몸과 마음을 삼가고 祭祀준비시 정결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陶庵 또한 忌祭 전에는 목욕재계하고 다만 제사 지내는 분 한 분의 신위만 設한다 하였으니 이것이에의 올바름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다만 제사를 받아야 할 신위에게만 제사하고, 함께 제사하지 않는다. 그것이 配位 제사를 박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슬픔은 제사해야 할 분에게 있기 때문일 따름이다<sup>28)</sup>.”

하며 忌日祭를 초상의 이음<sup>29)</sup>으로 보고 祭禮후에는 “슬픔을 표하여 이날을 마쳐야 한다<sup>30)</sup>.” 하였다. 제사 당일에는 새벽에 일어나 채소와 과일, 술과 음식을

진설하고 祭服으로 갈아입는데 주인과 형제는 父母나 祖父, 傍親祭祀에 따라 祭服이 다르고 主婦는 特髻去飾에 白大衣, 淡黃帔로 變服한다. 祭禮節次는 먼저 사당으로 가서 신주를 正寢으로 모셔 온 후 제사 참가자 모두 예를 드리는 參神부터 시작한다.

부모 제사인 경우에는 初獻후에는 祝을 하는데 歲序遷易 諱日復臨 追遠感時 不勝永慕라 하며 할아버지 이상이나 傍親인 경우에는 그 내용이 달라진다. 그 밖의 절차는 〈표 4〉와 같은데, 내용에 있어 四時祭의 의식대로 하되 受胙나 餽의 절차는 忌祭에는 없음을 밝히고 있다.

26) 『四禮便覽』卷之八, 祭禮章 四時祭, 前期三日齋戒 前一日設位 主人師衆丈夫 深衣及執事 灑掃正寢 洗拭椅桌 務令獨潔

27) 『四禮便覽』卷之八, 祭禮章 四時祭, 主婦師衆婦女 背子滌濯祭器潔 金鼎 具祭饌 務令精潔 未祭之前 勿令人先食及爲猫犬蟲鼠所汚

28) 『四禮便覽』卷之八, 祭禮 忌祭, 只祭所祭之位而不爲配祭 非薄於所配祭 以哀在於所爲祭者故耳

29) 『四禮便覽』卷之八, 祭禮 忌祭, 忌日乃喪之餘

30) 『四禮便覽』卷之八, 祭禮 忌祭, 致哀示變以終

『四禮便覽』 忌祭의 마지막 부분에는 음식과 의복, 행동에 있어서의 금기사항과 함께,

이제 사람들은 다만 忌祭가 큰 것만을 알고 忌日이 중하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이미 제사한 뒤에는 손님을 접대하되, 평일과 다름없이 하면서 어떤 이는 이미 재계가 끝났으니 평소같이 출입한다 하니 심히 옳지 못하다<sup>31)</sup>.

하니 지나치게 祭禮의 형식만을 가리고 진정 마음에 있어 그 禮를 다하지 못함을 경계하여 가르치고 있다. 전체적으로 祭禮規範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禮書에 의하면 祭禮는 살아계실 때 못다한 孝道를 繼續함이라 하고, 돌아가신 先祖에게 야박하게 한다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경계하여 가르치고 있다. 또한 祭禮를 행함에 있어 祭物의 크기나 가지수보다는 祭祀 지내는 이의 精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재력과 근력을 짐작하여 집안 형편에 맞게 제사 지남이 옳다 하였다. 즉, 지나친 형식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恭敬과 精誠을 강조하고 있다.

#### IV. 文獻에 나타난 祭禮의 特徵

이상의 내용으로 栗谷系流 유학자들의 禮書를 통해 祭禮의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祭禮規範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禮書에 의하면 祭禮는 살아계실 때 못다한 孝道를 繼續함이라 하고, 돌아가신 先祖에게 야박하게 한다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경계하여 가르치고 있다. 또한 祭禮를 행함에 있어 祭物의 크기나 가지수 보다는 祭祀지내는 이의 精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재력과 근력을 짐작하여 집안 형편에 맞게 제사 지남이 옳다 하였다. 즉, 지나친 형식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恭敬과 精誠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擊蒙要訣』, 『家禮輯覽』, 『儀禮問解』, 『四禮便覽』에 나타난 祭禮 行禮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設位에 있어 朱子家禮에 따라 제사 지내는 분 다만 한 분의 신위만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사람의 정리로 두분을 배위하는 것에 다소 융통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둘째, 忌祭를 행함에 있어 『擊蒙要訣』, 『家禮輯覽』에 자손이 번갈아 돌려가며 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 것으로 비록 억센 중이라도 기일이 되면 그 예를 다하여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擊蒙要訣』, 『家禮輯覽』, 『四禮便覽』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다. 또한 子孫들이 많이 있어 서로 도움을 주고자 할 때에는 그 음식을 해 가지고 와서 長孫이 祭祀를 지낸다 하였으며, 『四禮便覽』에는 祠堂을 설명함에 있어 사당은 宗孫이 대대로 지켜,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으로 宗家の 宗子만이 祠堂을 모실 수 있고 제사를 주관하여야 함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셋째, 祭需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家禮輯覽』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 보았을 때 栗谷의 祭儀抄에 나타난 忌祭의 祭需 내용과 별 차이가 없었고 다만 『家禮輯覽』과 『四禮便覽』에는 다른 두 책의 와 달리 食醢를 넣고 있다. 또한 淸醬과 熟菜를 각각 醬과 蔬로 달리 표현하고 있었다.

넷째, 祭祀前 복욕제계하고 제사당일이 되면 모두 變服을 하는데, 친척 범위나 제사 대상에 따라 혹은 祭酒의 관직유무에 따라 祭服에 차이를 두고 있어 男子를 중심으로 한 祭服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부인의 경우, 부모 제사시 화려하지 않은 옷에 特淸去飾(침지하고 민족두리)이 기본적 차림이고, 다만 『四禮便覽』에는 흰옷에 엷은 황색배자를 입는다고 설명되어 있을 뿐이다.

다섯째, 祭祀節次에 있어서 初獻후에는 축문을 읽고 그 뒤에 주인 이하 진정으로 슬퍼 뵈을 한다 하였다. 또한 忌祭에는 三獻을 하고 축문이 있으며 모든 절차가 끝난 후 時祭에서와 같이 受酢나 餞의 절차가 없었고, 『擊蒙要訣』 祭儀抄 忌祭儀에는 啓門과 辭神사이에 進茶를 제례절차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섯째, 제사 장소는 正寢으로 제사 지내기가 앞서

31) 『四禮便覽』, 卷之八, 祭禮 忌祭, 今人但知忌祭之爲大 不知忌日之爲重 已祭之後應接賓客不異平時 或有謂已罷齊出人如常者 甚不可也

미리 집안팎과 正寢을 청소하고 의자와 탁자를 닦아 정결히 한 후 제사 당일에 사당으로 가서 신주를 정침으로 모셔온다. 따라서 忌祭時 장소는 정침으로 일치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일곱째, 忌는 금기한다는 뜻이고 諱는 피한다는 뜻이니 忌와 諱는 같은 의미를 지닌 글자로 축문에 諱日復臨(부모님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와 임하니...)이라 했을 때 諱日은 즉 忌日을 뜻함이다. 그리하여 忌日이 되면 공통적으로 主祭者이하 모든 사람이 禁해야 할 것이 있었으니 술이나 고기 먹는 일을 금하고 蔬食을 하며 음악을 듣지않고 부부는 각 방을 쓰도록 하였다.

이상으로 예서에 나타난 전반적인 제례 행례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 先賢의 禮設을 참고로 학자들 나름대로 家禮를 정리하고 몸소 실천하여 禮의 올바른 배움을 깨우쳐 주고 있다.

## V. 結 論

오늘날 한국은 서구 외래 文物과 사상을 받아들이며서 고유의 생활문화와 양식은 전근대적이며 낙후된 것으로 간주되고 무시되는 풍토가 사회전반 주류를 이루며 전통문화의 단절이라는 위기를 맞이해 이르렀으나, 결과적으로 사회는 가치관 혼란과 정체성을 잃고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져 각종 문제를 야기시켰다. 따라서 一角에서는 전통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해 보려는 노력이 일고 있다.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오늘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孝를 기본이념으로 한 報本의 祭禮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례라 할 수 있다. 즉 제례를 통하여 돌아가신 선조를 추모하며 그들의 훌륭한 업적과 교훈을 자손들에게 들려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여, 자손들에게 효를 실천하는 본보기가 되며 인간의 근본을 깨우치게 하는 교육의 구실 뿐 아니라 가족, 친척이 모여 한조상을 기리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양보와 함께 삶의 지혜도 배우게 된다.

栗谷의 『擊蒙要訣』과 沙溪의 『家禮輯覽』 『疑禮問解』, 陶庵의 『四禮便覽』에서 祭禮는 朱子家禮를 바

탕으로 그 內容이 전개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이를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예컨데, 說位에 있어 朱子의 家禮에는 제사를 당하는 한분 즉 考位나 妣位 한분만 차린다고 했고 程子は 考位나 妣位를 함께 지낸다 하여 先賢의 家禮 內容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충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이들 禮書에 나타난 忌祭는 時祭에 준하여 행하거나 혹은 時祭와 차이를 주어 행함을 밝히고 있다.

한편, 禮書에 의하면 선조들은 散齋·致齋라 하여 제례를 행하기전부터 마음과 몸가짐에 있어 삼가고 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고, 제례에 임하여 지나치게 형식만을 가리고 진정 마음에서 禮를 다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예가 아님을 경계하여 가르치면서 祭禮의 誠·敬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전통사회 제례에 나타난 제례행례의 유형에서 본래 忌日은 祝文에도 諱日復臨(돌아가신 날을 다시당하여)하니 조상이 돌아가신날이 기일이 되며 禮書에 厥明이라하여 그날 새벽에 음식을 차리고 質明이라하여 새벽 해뜰무렵 變服한다 하였으나 새벽에 제사를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대해 尹元撤<sup>32)</sup>은 한밤중이나 새벽은 일상의 소란으로부터 격리된 또는 아직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시간이기 때문에 子正이나 아침일찍 동틀 때에 행해지는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즉 先祖의 忌日에 일상생활과 다른 특별한 시간에 祭祀를 행함으로써 人間의 日常事와 차이를 두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禮書에 의하면 그 節次에 있어 參神에서부터 三獻을 하고 모든 祭需를 물리는 撤의 과정까지 13단계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栗谷은 啓門 다음에 進茶를 포함시킴). 오늘날 대부분 가정<sup>33)</sup>에서는 기

32) 尹元撤, "民俗宗教祭儀의 機能에 대한 考察", 『傳統思想의 現代的 意味』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90-8, 1990, p119

33) 한재숙 외, "제례에 대한 도시주부들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영남대 자원문제 연구소, 자원문제연구 8, p152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94%가 飲福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후 조상이 주신 복된 음식으로 음복을 중요한 祭祀節次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실제 문헌에는 시제때에 절차의 마지막 부분에 受胙나 餼이 있고, 忌祭에는 이같은 절차가 없다. 또한 祭服에 있어 남자의 경우 친척의 범위나 관직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있지만 여자의 祭服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되고 있지 않다. 다만 화려하지 않은 옷이나 흰옷에 얇은 황색배자를 입을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본래 전통사회에서 亞獻禮에 주부도 참석하고 있었으니 오늘날 주부들도 마땅히 제사 참여해야 할 것이며 이때 화려하지 않은 검소한 복장으로 제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또한 先祖들은 祭需의 과다보다는 정성이 으뜸이라 하여 물 한 대접을 떠 놓기도 제례를 행하였다. 오늘날 祭禮遂行時 형편껏 자신의 분에 맞게 준비하여 자식된자로서 도리를 다한다면 제례를 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사료된다.

산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현대사회 家庭內에서 祭禮는 家家禮에 따라 어떠한 形式으로든 그 行禮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제례를 先祖들이 행하였던 바대로 수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본 연구는 제례가 오늘날 교육적으로나 정신적인 면에서 그 기여도를 재평가함과 동시에 사회가 변화해도 제례의 본질적인면은 변화될수 없다고 보고 단지 방법론에 있어 전통제례를 규범화시켜 오늘날 각 가정에 적용시키기 보다는 사회전반의 가치지향적 개념으로 제례의 중요성을 재인식 해 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자의 의도가 있음을 밝혀둔다.

## ■ 參考文獻

### 1. 古文獻

家禮輯覽  
經國大典  
擊蒙要訣  
戒女書  
內訓

論語  
四禮使覽  
三國史記  
三國遺事  
喪禮備要  
小學  
疑禮問解

### 2. 現代文獻

- 1) 강신표외 전통적생활양식연구(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 2) 고영진 조선중기예학사상사 新한국사상사2, 한길사, 1995
- 3) 具範謨外 韓國產業社會의 構造와 價値觀의 諸問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보고논총, 1992
- 4) 김문숙 "祭禮의 思想과 祭服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5
- 5) 金仁玉 "祭祀時 祭需에 관한 一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6) 金鍾瑞外 傳統思想의 現代의 意味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90-8, 1990
- 7) 金珠也 "통과의례에 따른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주거공간이용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8) 孫仁錄 "韓國人的 傳統的倫理意識" 정신문화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가을호
- 9) 박수정 "도시주부의 제례행례 의식과 제례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10) 박순천 "도시주부의 가정생활관과 제사행례 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11) 송석구 "기독교와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 18집, 1986
- 12) 안혜숙 "석기시대 신앙 및 제의와 가정생활문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13) 유동식 "불교와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18집, 1986
- 14) 윤사순 한국유학사상론 열음사, 1992

- 15) 尹泰林 韓國人的 性格 東方圖書, 1994
- 16) 李光奎 韓國傳統文化的 構造的 理解 서울 : 서울 대학교 출판부, 1994
- 17) 李吉杓 “家禮를 통해 본 韓國人的 意識構造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2
- 18) ———, 朱英愛 傳統家庭 生活文化 研究 서울 : 신광출판사, 1995
- 19) 이선희 “제복의 기원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성신 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20) 이수은 “영남지방 제례에 관한 조사연구”, 계명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21) 李乙浩 “禮概念의 變遷過程” 대동문화연구 4집, 1967
- 22) 李鍾恒 “우리 民族의 喪禮와 祭祀에 대한 研究” 국민대 논문집, 인문과학편 9, 1975
- 23) 임양순 “의례음식에 대한 주부의 의식조사연구” 사회과학연구 20집, 1984
- 24) 임옥재 “제례에 대한 부녀자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숙대 아세아여성연구 1981
- 25) 장수근 “巫俗의 조상숭배”, 한국문화인류학18집, 1986
- 26) 최길성 “한국 조상숭배의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15집, 1983
- 27) 한경순 “혼·상·제례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28) 홍현주 “조상제사에 대한 가치관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29) Van Gennep, 전경수역 통과의례 서울 : 을유문화사, 1992
- 30) R.L. Janelli, D.Y. Janelli, Ancestor Worship and Korean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1982